



인쇄인들 태안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

“힘은 들었지만 봉사의 기쁨이 더 컸다”

지난 4월 11일 아침 6시50분. 중구 쌍림동에 위치한 서울인쇄조합 앞으로 인쇄인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서울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 책자부회와 산수회에 소속된 인쇄인 20여명으로, 태안으로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떠나기 위해 모였다.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난지 벌써 120일이 넘은 현재. 지금은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사라졌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아직도 태안봉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이 함께한 태안봉사에 조금은 늦은감이 있지만 인쇄인들도 동참했다. 두 시간여를 달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의항리 구름포 해수욕장. 사고가 난지 120일이 넘어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지만 이곳은 텔레비전 사고속 현장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서울의 거리에는 벚꽃이 꽃비처럼 흩어지고 하얀 개나리가 눈부시지만 태안은 아직도 겨울이었다.

한쪽에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 밑에 장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대부분 장화는 신던 것을 재활용해 신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쪽에는 포대자루가 쌓여있었는데, 포대자루 안에는 기름을 닦기 위한 걸레들이 담겨져 있었다.

금요일이었지만 서울조합 인쇄인들외에도 태신인쇄과 종교단체에서도 봉사를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기름 제거를 돕는 군청 관계자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구름포 해수욕장 옆 바위틈이었다. 험난한 산과 바위를 건넌지 15분여. 드디어 봉사지역에 도착했다. 돌들은 비교적

정리가 잘 돼 있었다. 하지만 돌들을 닦으면서 파고 들어가면 석유냄새가 역했으며, 마스크를 써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게다가 아직도 기름을 잔뜩 뒤집어쓴 바위와 돌들이 많았다.

10시부터 본격적으로 봉사가 시작됐으며, 물때와 배고픔으로 인해 오후 2시 정도까지 작업을 진행했다.

평소 낚시를 좋아해 서해안을 많이 찾았던 유상태 사장은 “태안의 사고이후 봉사를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봉사현장까지 가지못해 너무나 아쉬웠다”라며 “다친사람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으며, 간사장님과 간사님들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고성채, 구양모, 도경수, 배경환, 안길홍, 이호연, 정용식, 한용근 사장 등 봉사에 참여한 간사들 모두는 “봉사를 함께 와서 너무나 기뻐다”라며 “기회가 생긴다면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 한번의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쇄인들외에도 황정혜(청우)사장의 자녀인 박수지(중1)양도 봉사에 참여했다.

김남수 간사장은 “이번 봉사를 계기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번에는 책자부회와 산수회 회원들만 봉사를 했지만, 다음에 한번 더 봉사를 떠나고 싶다. 그리고 그 때에는 전 인쇄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남숙기자 sang@print.or.kr

